

주간 규제 정보

Vol. 414

2022. 09. 05 ~ 2022. 09. 11



목차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키보드)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3
2.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전동보드)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3
3. 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 4
4. 무선 이어폰 재생시간, 표준으로 정확히 측정한다 5

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

5. 한국 제안 지능형 차량통신보안 관련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안 3건 사전 채택 6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6. 식품 표시정보, 이제 QR코드로도 확인! 10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7. 중국 변속기 시장동향 12
8. 미얀마 화학비료 시장의 현황과 수출 절차 16
9. 미국 오븐 및 조리용 기구 시장동향 2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키보드)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49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키보드)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2년 9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키보드)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1. 개정취지

- 「부속서 12 (어린이용 키보드)」안전기준에서 해외기준과 상이한 일부 안전요건을 부합화하고, 도로교통법 등 타법과의 규제 조화를 위해 안전기준 적용범위 등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금내식성 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삭제, 낙하시험방법 해외기준(EU)으로 부합화
- 적용범위, 종류, 안전요구사항, 시험방법에서 전동식 키보드 항목 및 내용을 삭제하고, 안전요구사항 내 구조 요건 조항(5.2.6항) 추가

3. 붙임자료

-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2 (어린이용 키보드)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2.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전동보드)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0303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전동보드)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2020년 9월 6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전동보드)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증가로 제품이 다양화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등 5종 제품* 외 안전기준이 없는 신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추가 마련하려는 것임

*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동이륵평행차, 전동외륵/이륵보드

2. 주요내용

- 「부속서 72 (전동보드)」 안전기준 내 제5부(저속전동이륵차), 제6부(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공통안전기준)를 신설·추가하고, 부록 A (전동보드 세부 품목 일부 예시)를 추가

3. 붙임자료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보드)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3. 저속전동이륵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

- “앞으로 개인형이동장치(PM) KC 마크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 국표원, 9월 6일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 고시 -

- 속도 25km/h 미만의 저속전동이륵차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신설·추가한다.

*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레저 및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1인용 이동기구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국표원’)은 저속전동이륵차(전동스쿠터),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9월 6일 개정 고시한다.

- 국표원은 2017년부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5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KC 인증제도를 운용해왔다.

* 전동킥보드, 전동외륵/이륵보드(전동휠), 전동이륵평행차(세그웨이), 전동스케이트보드

- 또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염두에 두고 주행 안전 요건을 추가 정비(2019년)*하고, 배터리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요건을 개선(2020년)**하는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관리를 개선해 왔다.

* ('19년) 30kg 무게 제한, 등화장치, 경음기 장착 의무화 등 주행 안전요건 추가

** ('20년) 리튬배터리 별도 KC 인증 관리(과충전 시험 강화 등), 충전기 출력전압 기준 강화 등

- 하지만,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는 등 시장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 * PM 화재사고: ('18) 5건→('19) 10건→('20) 39건→('21) 39건 [출처: 국가화재정보센터]
- 이에 국표원은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인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의 안전기준**을 신설하였다.
- * ① (저속전동이륜차) 핸들 및 좌석이 부착되어 있고, 최고속도 25km/h 미만인 전동으로 움직이는 이륜 이동 기구
- ②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기존 PM 5종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제품
- ** (안전기준 주요내용) i) 배터리 KC 인증, 제어불능방지, 밀폐성 등 ii) 겉모양, 구조, 강도, 방수성능, 항온항습·고온·저온 시험 등 iii) 제동성능, 주행안전성 등
- 이번에 개정하는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된다.
-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2023년 3월 7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개정된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은 국표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한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추가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4. 무선 이어폰 재생시간, 표준으로 정확히 측정한다

- 국표원, '무선 이어폰 오디오 재생 시간 측정방법' 국가표준(KS) 제정 -

- 무선 이어폰의 중요한 성능 지표인 오디오 재생 가능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비교할 수 있는 국가표준이 제정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좌우 독립형 무선 이어폰*의 오디오 재생 시간 측정방법」을 규정한 국가표준(KS C 5500)을 9월 8일 제정·고시한다.
- * 좌우 이어폰이 전원 또는 신호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형태의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 무선 이어폰 구매 시 배터리 성능 즉, 오디오 재생 가능 시간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으나,
- 재생 시간 측정 시험방법에 대한 공인된 표준이 없어 소비자들은 제조사가 자체 측정한 성능 정보를 토대로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 (사)소비자시민모임이 무선 이어폰 재생 시간에 대한 공인 시험방법 마련을 요청('20.6월)하는 등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능측정 시험방법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 이에 국표원은 '2021년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학·연 표준전문가*들과 함께 「좌우 독립형 무선 이어폰의 오디오 재생 시간 측정방법」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 * 삼성전자, 엘지전자, 애플코리아, 소니코리아, 광운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 이 표준은 무선 이어폰 재생시간 측정 시 필요한 시험환경, 측정조건, 측정방법, 측정장비 등을 규정하

고 있다.

- 특히, 모든 제품을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측정 시 무선 이어폰의 기본 조건*을 설정하였으며, 측정항목에는 배터리 유지 시간, 잡음 비율 곡선, 측정 최대 음압수준 등을 제시하였다.

* 능동소음제어 기능 적용 여부, 블루투스 오디오 코덱(AAC, SBC 등), 오디오의 음압수준 등

- 무선 이어폰 제조기업은 재생 시간 등 성능 측정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을 통해 성능측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무선 이어폰에 대한 성능 정보를 제공하는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성능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 “앞으로 해당 국가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은 물론, 국민 일상과 직결되는 다양한 표준화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

5. 한국 제안 지능형 차량통신보안 관련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안 3건 사전 채택

- 양자암호통신 등 신규 표준화 과제 3건 승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국립전파연구원은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국제의장: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지능형 차량통신보안 등 국제표준 3건이 사전 채택”되었고, 양자암호통신 등 신규 표준화 과제 3건이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 표준의 최종 승인 직전 단계로 회원국 등의 회람을 통해 이견이 없을 경우 최종 승인

① 차량통신보안 국제표준안 사전 채택 3건

- 최근 차량이 점차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정도로 지능화됨에 따라, 차량 통신에 대한 보안 위협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관련 표준기술을 국내 산·학·연(고려대, 이타스코리아, ETRI, 현대자동차)(가나다순) 협업을 바탕으로 다년간 개발하였으며 이번 SG17 국제회의에서 국제표준(안)으로 3건이 사전 채택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 사전 채택된 국제표준(안)은 ① ‘커넥티드 자동차 침입방지 시스템을 위한 가이드라인’, ② ‘클라우드 기반 차량 데이터 저장장치 보안 가이드라인’ ③ ‘이더넷 기반 차내망 보안 가이드라인’으로 차량 네트워크의 보안성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동차 보험사 등에서 차량 사고 원인 분석 및 분쟁 조율 시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양자암호통신 등 신규 표준화 과제 승인 3건

□ 한편,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① ‘양자 키 분배 네트워크 상호연동 보안 요구사항’, ② ‘초고신뢰 초저지연 통신을 지원하는 C-V2X* 서비스 운영을 위한 보안 및 구성 시나리오(X.1813 ** 부속서), ③ ‘차량 ID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이 신규 표준화 과제로 승인되었다. 신규 표준화 과제 개발에는 맥데이터, 순천향대, 현대오토에버, SK텔레콤, TTA(가나다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관련 표준개발 연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C-V2X(Cellular Vehicle-to-Everything, 이동통신 기반 차량 사물통신)

** X.1813(초고신뢰 초저지연 통신을 지원하는 IMT-2020 기반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부속서(Supplement) : 표준에 보완적이거나 관련이 있지만, 이해 및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문서

□ 국립전파연구원은 “디지털 혁신 가속화에 따라 사이버위협이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안전한 디지털 강국 구현을 위해, 산·학·연과 협력하여 국내 정보보호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ITU-T 국제표준 사전 채택 및 신규 표준화 과제 승인 목록

2. ITU-T SG17 설명자료

<관련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CT융합표준팀	책임자	팀 장	강석규 (031-780-9068)
		담당자	책 임	박수정 (031-780-9169)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붙임 1**ITU-T 국제표준안 사전 채택 및 신규 표준화 과제 승인 목록****□ ITU-T 국제표준안 사전 채택(총 3건)**

No.	제목	에디터(소속)	주요 내용
1	커넥티드 자동차 침입방지 시스템을 위한 가이드라인 (X.1377)	김휘강, 정성훈 (고려대), 이상우(ETRI), 박승욱(현대자동차)	-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보안 위협 - 침입 차단 시스템 구현 지침 및 활용 사례
2	클라우드 기반 차량 데이터 저장장치 보안 가이드라인 (X.1380)	이상우(ETRI), 박승욱(현대자동차)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저장 정보 및 시스템 개요 - 보안 자산 식별 및 보안 위협 - 보안 요구사항, 활용 사례
3	이더넷 기반 차내망 보안 가이드라인 (X.1381)	이상우(ETRI), 이유식(이타스코리아)	- 이더넷 기반 차내망의 네트워크 구조 - 보안 자산 식별 및 보안 위협 - 보안 요구사항 및 고려사항

□ ITU-T 신규 표준화 과제 승인(총 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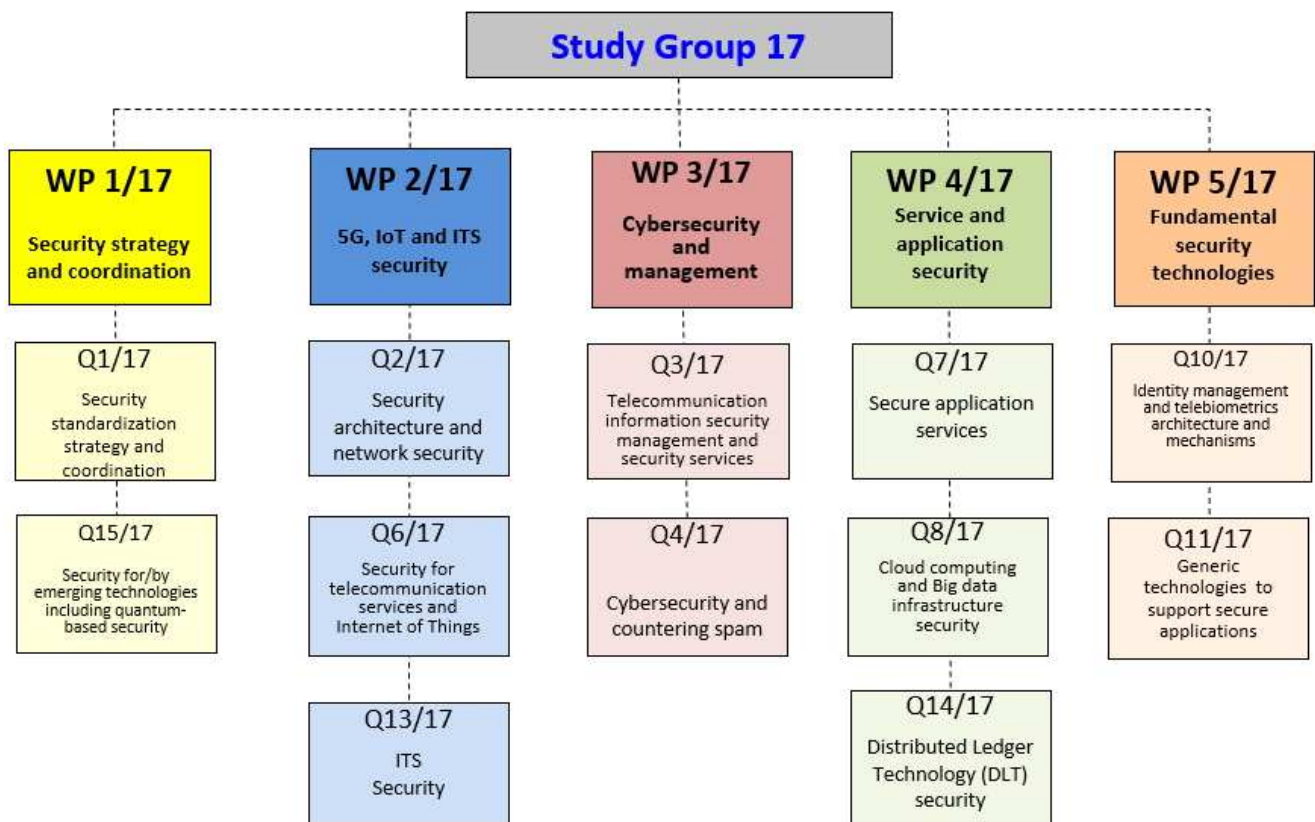
No.	제목	에디터(소속)	주요 내용
1	양자 키 분배(QKD) 네트워크 상호연동 보안 요구사항 * QKD(Quantum Key Distribution)	심동희(SK텔레콤)	- 이기종 QKD 네트워크 연동 시나리오에서의 보안 위협 - 이기종 QKD 네트워크 연동 시나리오에서의 보안 요구사항 및 보안 정책
2	초고신뢰 초저지연 통신을 지원하는 C-V2X 서비스 운영을 위한 구성 시나리오 (X.1813 부속서)	신성기,오재언 (맥데이터), 김영재(TTA), 염흥열(순천향대)	- C-V2X 서비스 관련 보안 위협 - C-V2X 서비스용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활용한 보안 구성 시나리오
3	차량ID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	여기희(현대오트모에버), 염흥열, 박성채 (순천향대)	- 전기차 충전을 위한 PnC 서비스 인증 시 분산신원증명을 적용한 모델 - 차량 내/외부 보안 위협 및 요구사항 * PnC(Plug&Charge) : 전기차에 플러그를 연결만 하면, 인증,충전,결제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붙임 2 ITU-T SG17 설명자료

□ 정보보호 연구반(ITU-T SG17) 개요

- (개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ITU-T) 산하 연구반으로 정보보호 분야의 표준화를 담당
 - * 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 (표준화 범위) 보안구조 및 네트워크 보안, 정보보호 관리체계 기술, 사이버보안, 스팸 대응, 응용서비스 보안, 신원 관리 및 텔레바이오인식 기술, 보안 응용을 지원하는 일반 기술, 차량 통신 보안, 분산원장기술 보안, 양자암호통신 및 차세대 보안 등
- (조직구성) 5개 작업반(Working Party) 및 산하 12개 연구과제(Question)

< ITU-T SG17 조직 구성도 >



출처(국립전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6. 식품 표시정보, 이제 QR코드로도 확인!

- 소비자 안전·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사항은 크게 표시, 나머지는 QR로 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품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시사항을 스마트라벨(QR코드)로도 제공할 수 있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 *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 ** 사업명 :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 이번 사업은 (주)농심 등 6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9월 5일에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 * 농심,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투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 이번 사업에서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를 정했고, 이에 대해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제품에 크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 7개 항목은 안전·제품 선택을 위해 1차적으로 소비자가 확인하는 정보로, 지난 3월부터 소비자단체,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하고, 그 외에 소비자 관심 정보와 식품안전정보**까지 추가 제공합니다.
 - *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
 - ** 생애주기별 영양정보, 조리·해동방법, 부적합 정보, 이력추적관리 정보 등
 - 참고로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모든 정보를 제품의 포장재에 표시하고, ‘식품유형, 용기·포장의 재질, 보관방법’ 등 3개 항목에 한해서만 표시 없이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사업 운영으로 제품 표시정보의 가독성이 향상되고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한편, 식품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포장지 교체 비용 절감*으로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QR로 표시하는 정보는 표시사항 변경 시 포장재를 교체할 필요가 없음
 - 아울러 포장지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되어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사업 운영 과정에서 규제특례 적용에 따른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해 소비자와 식품업계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붙임>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 대상

붙임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 대상

연번	업체명	대상 품목	식품유형
1	농심	육개장사발면	유탕면
2		김치사발면	유탕면
3	매일유업	앱솔루트 시작부터 프리미엄 명작 1	영아용 조제유
4		앱솔루트 엄마의 선물 프리미엄 명작 2	성장기용 조제식
5		앱솔루트 엄마의 선물 프리미엄 명작 3	성장기용 조제식
6	샘표식품	샤브샤브청양초칠리딤소스	소스
7		샤브샤브흑임자참깨딤소스	소스
8	오뚜기	육개장	유탕면
9		간편시래기된장국	즉석조리식품
10		간편미소된장국	즉석조리식품
11	풀무원녹즙	위러브 플러스	과·채주스
12	풀무원식품	오리엔탈드레싱	소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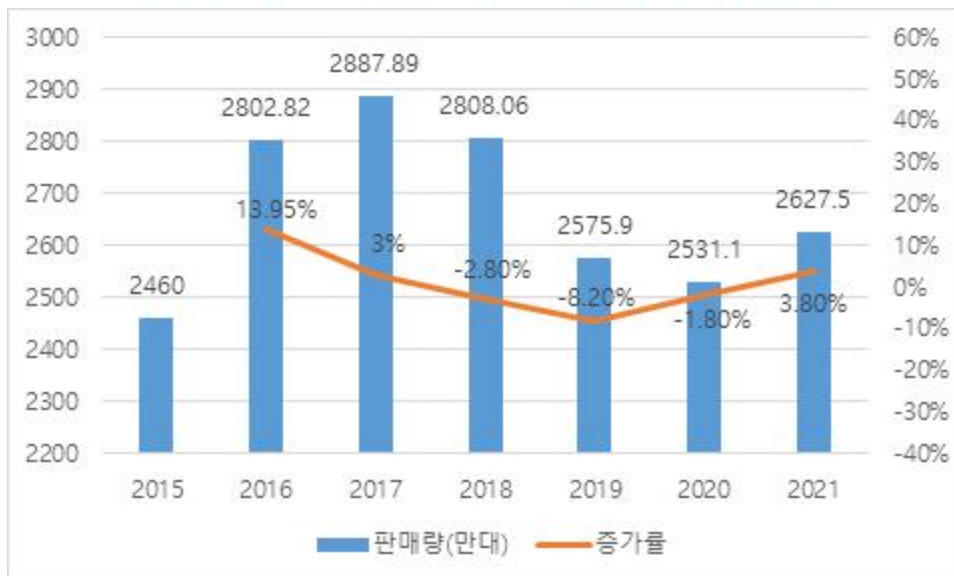
7. 중국 변속기 시장동향

- 중국 변속기 시장은 주요 해외 브랜드가 주도, 핵심 부품은 수입 의존도 높아
- 승용차 고급화, 전기차 보급 확산 등에 따라 변속기 시장 변화 가속화

시장동향

변속기는 자동차에서 엔진 만큼이나 중요한 부품으로서, 엔진의 피스톤 운동을 통해 발생시킨 힘을 잘 배분시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부품이다. 변속기는 대부분 자동차에 반드시 들어가는 주요 부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완성차의 판매량 변화 및 완성차 시장의 발전 방향이 변속기 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2017년 최고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1년 판매량은 2627만 대로 전년 대비 3.8% 반등하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용 변속기 시장 역시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발전하고 있다.

<2015~2021년 중국 자동차 판매량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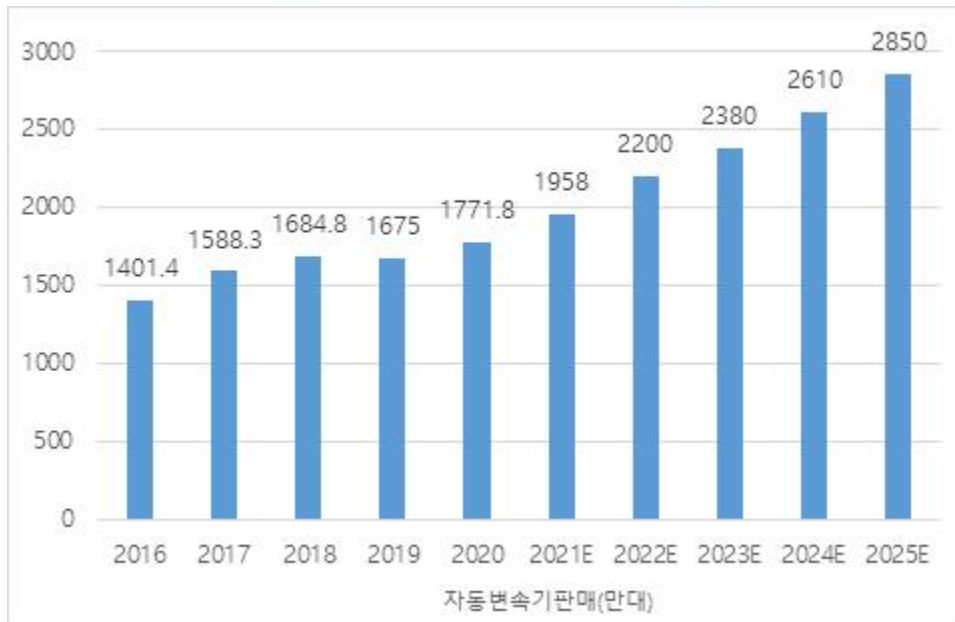
[자료: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자동차용 변속기는 수동변속기(MT), 자동변속기(AT), 하이브리드 전용변속기, 전기차용 변속기 등으로 구분된다. 수동변속기(MT)는 상대적으로 기술이 단순하고, 이미 기술보호 기간도 지난 상황이다. 수동변속기의 경우 승용차에 사용하는 비율은 낮지만 상용차의 경우 여전히 수동변속기 사용율이 약 90%에 달한다. 자동변속기(AT)는 비교적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생산 원가가 높으며 특히, 핵심 기술은 여전히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일부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2020년 중국 승용차 중 자동변속기의 사용률은 약 70%이며, 이 비율은 연 5%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속도로 증가할 경우 2024년 승용차의 자동변속기 사용률은 90% 이상이 될 전망이다.

2020년 기준 중국 승용차에 사용된 자동변속기는 연간 1700만 대 이상이다. 자동변속기는 크게 DCT(Dual Clutch Transmission), AT(Auto Transmission), CVT(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의 3종류로 나뉜다. 중국 내 주요 완성차 기업의 변속기 사용량으로 볼 때, 폭스바겐(FAW-VW 및 SHANGHAI-VW)은 DCT를 위주로 사용한다. 2020년 FAW-VW, SHANGHAI-VW의 DCT 사용 비중이 각각 58%, 77%였다. 한편, 일본 합작 브랜드(토요타, 혼다, 닛산)는 CVT 사용 비율이 90% 이상이다. 그 외 벤츠, BMW 등 고급 브

랜드 차량은 AT를 위주로 사용한다. 많은 중국기업은 자동변속기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에서 자동변속기 및 관련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최근 중국기업들도 자동변속기를 자체 개발 및 생산하기 위해 투자와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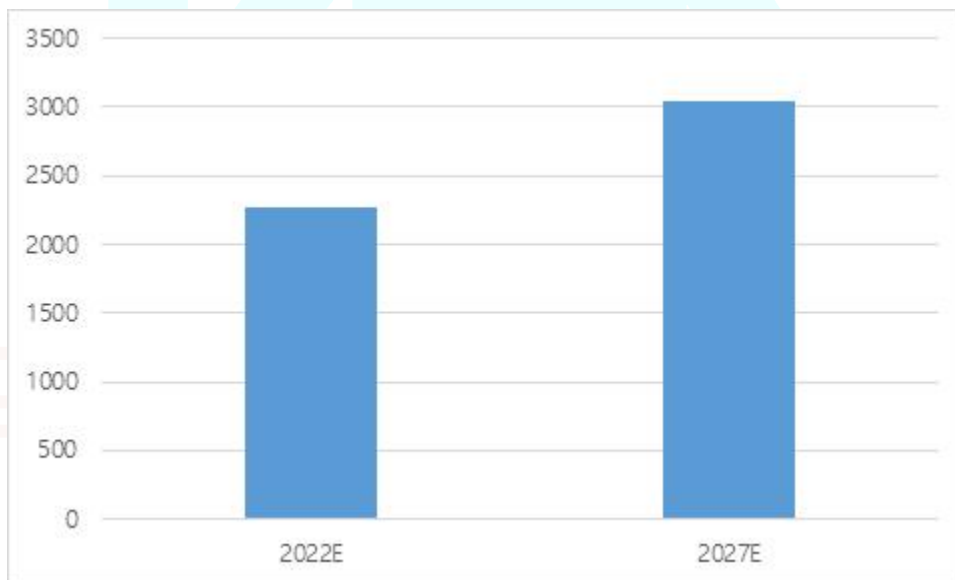
<2016~2025년 중국 자동차 자동변속기 판매량 및 전망>



[자료: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첸잔왕(前瞻网)에 따르면 2020년 중국 변속기 시장규모는 1735억 4800만 위안으로 추산된다. 2021년에는 자동차 생산 판매량 증가로 변속기 수요도 증가해 시장규모가 약 1800억 위안으로 증가했고, 2027년이 되면 시장규모가 3000억 위안을 돌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수요의 고급화에 따라 자동변속기의 수요 증가 및 단가 상승으로 2022~2027년 중국 자동차 변속기 시장규모는 연평균 6%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2022~2027년 중국 자동차 변속기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 위안)



[자료: 첸잔왕(前瞻网)]

최근 신에너지 차량의 증가 역시 변속기 시장에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하

는 신에너지 차량의 구동 방식은 모터 또는 모터+엔진으로 구성되어 변속기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변속기와 차이가 있다. 순수 전기자동차는 모터를 통한 직접 구동 방식으로서 모터의 회전속도 조절 범위가 커 현재 대부분 모델은 1단 변속기를 사용 중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직렬, 병렬, 혼합연결 등 동력 연결 방식 따라 변속기에 대한 요구도 다르다. 직렬 방식은 모터가 구동하고 엔진은 발전기 방식이기 때문에 순수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병렬, 혼합연결 방식은 변속기가 필요하다. 2022년 7월 중국승용차연합회(全国乘用车联席會) 비서장 추이둥수(崔东树)의 언급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전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619만 대, 그 중 하이브리드 차량이 183만대로 약 30%를 차지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는 2012년의 신에너지 차량의 93%를 차지했으나, 2015년 79%로 하락했으며, 2020년 이후 하락세가 더욱 가속화해 2022년 비중이 30%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에너지 차량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사용하기 위한 변속기보다는 순수 전기차용 변속기 개발에 더욱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수입동향 및 한국에서의 수입 규모

2021년 중국의 변속기 및 관련 부품 수입규모는 117억 6499만 달러로 주로 일본, 독일 등에서 수입했다. 중국 변속기 수입시장에서 일본과 독일의 점유율은 각각 40.1%, 31.0%로 두 국가에서의 수입이 전체 수입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중국 변속기 수입시장에서 줄곧 일본, 독일에 이은 3위를 차지해 왔으나, 2020년 4위, 2021년 5위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했다. 2021년 한국에서의 수입규모는 5억 1963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해 2017년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4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시장점유율은 4.4%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8~2021년 중국 변속기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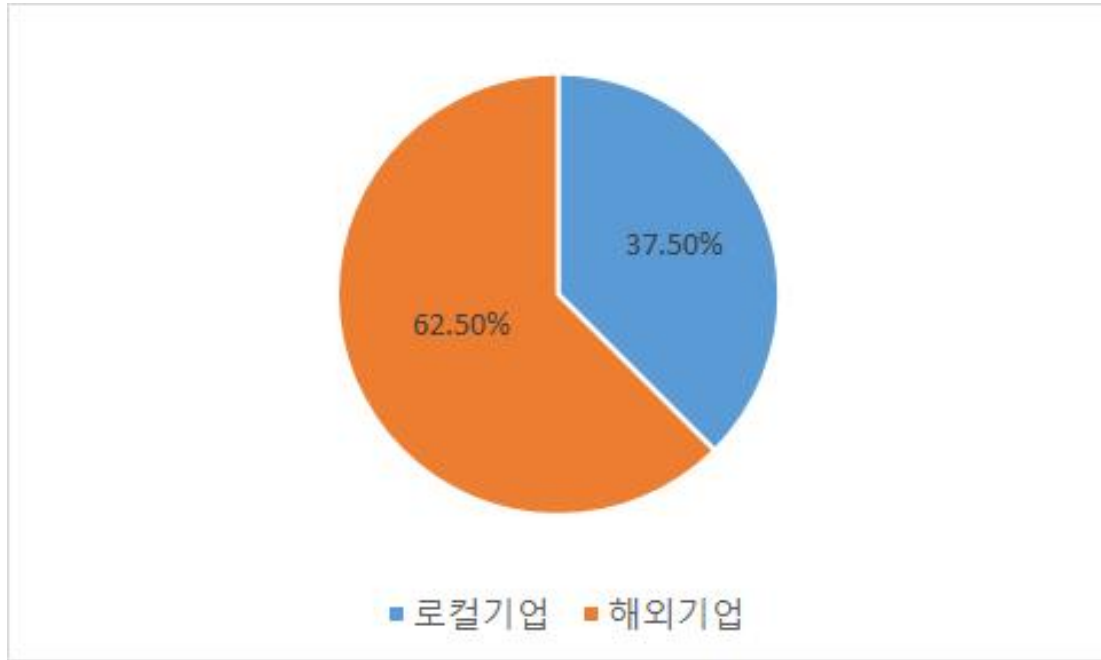
국가	2018수입	증감율	2019수입	증감율	2020수입	증감율	2021수입	증감율
세계 전체	13,245,694	5.7	10,493,568	-20.8	10,444,003	-0.5	11,764,996	12.6
일본	5,616,288	12.7	4,521,585	-19.5	4,159,759	-8.0	4,714,914	13.3
독일	3,759,372	5.9	3,153,463	-16.1	3,444,435	9.2	3,646,108	5.9
프랑스	378,802	13.4	417,529	10.2	342,650	-17.9	709,400	107.0
미국	821,453	-2.2	439,949	-46.4	625,641	42.2	692,348	10.7
한국	874,376	-23.3	636,777	-27.2	455,075	-28.5	519,632	14.2

[자료: kita]

경쟁동향

중국 자동차 변속기 시장은 해외 기업인 ZF(독일), AISIN(일본), JATCO(일본) 등이 주도하고 있다. 중국 국내 변속기 브랜드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2016년에 처음으로 중국 국내 브랜드 변속기 판매량이 120만 대를 넘어서 시장 점유율 10%를 차지한 바 있다. 2020년 중국 국내 변속기 브랜드의 연간 생산능력이 650만 대를 넘어섰고 생산능력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37.5%에 도달했다.

<2020년 중국 자동차 변속기 생산능력 현황>



[자료: 화징산업연구원(华经产业研究院)]

<2020년 중국 주요 변속기 생산 기업 현황>

기업명	제품구조	2020년 변속기 생산 규모
상치변속기(上汽变速箱)	수동변속기, 자동변속기, 전기차/하이브리드 변속기	109억 위안
Fast(法士特)	대형 트럭 변속기, 중형 트럭 변속기, 소형 트럭 변속기, 버스 변속기, 클러치, 감속기 등	249억 위안
완리양(万里扬)	자동차 변속기, 전기차/하이브리드 변속기	57.7억 위안
징안동력(京安动力)	자동차엔진(Range-Extend 포함), 자동차 변속기, 기타	4.2억 위안
칭산공업(青山工业)	승용차 DCT, MT 및 전기차/하이브리드 파워트렌	DCT/MT 생산능력 100만대, 전기차/하이브리드 파워 트레인 생산능력 40만대

[자료:첸잔왕(前瞻网)]

유통구조 및 관세율, 인증

차량용 변속기의 경우 대부분 완성차 회사나 변속기 모듈을 만드는 회사에서 OEM방식으로 생산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형태로 유통된다. 따라서, 차량용 변속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개발 및 설계 단계부터 완성차 업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산 변속기 완제품의 수입 관세는 8%(FTA 적용 8%, '22년 RCEP 적용 잠정 관세율 3%)이다. 변속기 부품의 경우 부품 종류 및 원산지 등에 따라 0~1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변속기 완제품 및 관련 부품은 중국 강제 인증은 필요하지 않지만 자동차 회사별로 자사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일부 부품은 제품 특성상 화학물질 인증 또는 운송을 위한 안전인증 등이 필요할 수 있다.

<HS 코드 및 관세율>

상품명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HS Code	870840
관세율	8%(한중 FTA 적용)

[자료: 중국자유무역구서비스넷(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시사점

중국 자동차 시장의 고급화 트렌드에 따라 최근 변속기도 고급화되고 자동변속기는 주요 옵션으로 자리잡았다. 자동차 판매 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지만 자동차 단가 및 품질 요구 향상으로 자동변속기의 사용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변속기 단가도 높아지는 추세다. 미국 및 유럽 등 성숙된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변속기의 높은 점유율을 고려하면 아직 중국 변속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변속기 부품기업 담당자는 "현재 전기자동차는 변속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중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변속기 및 하이브리드 변속기 수요는 아직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기업은 중국기업보다 기술적으로는 앞서 있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뒤진다."고 평가했다. 우리 기업이 중국 변속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내연기관 완성차 업체로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최근 중국 완성차 시장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기차 브랜드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앞선 기술력을 활용하여 전기차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변속기 시장 진출이 필요할 것이다. 순수 전기차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변속기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 시장 선점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첸잔왕(前瞻网), 화징산업연구원(华经产业研究院),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중국승용차연합회(全国乘用车联合会), KITA, KOTRA 충청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8. 미얀마 화학비료 시장의 현황과 수출 절차

- 농업국 미얀마의 공급선 관리 중점 품목
- 현지 시장진출의 새로운 전략 제품군으로 주목 필요

미얀마는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지속된 국제 제재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해외자본의 이탈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외화 결제 역량이 저하되며 대외수입 규모가 급격히 축소됐다. 실제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의 무역통계에 나타난 2021 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총 146억 5808만 달러로 직전 회계연도의 190억5085만 달러 대비 약 23.1% 감소한 수치였다. 최근에는 현지 정부가 외화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추후 수입 실적은 이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 2020년까지 적용된 미얀마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시작해 당해연도 9월 31일에 주기가 끝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상기 문단의 2020 회계연도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참고로 2022년 4월 1일부터는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시작해 다음해 3월 31일 주기가 끝나는 것으로 회계 규정이 변경됐다. 현지 정부는 새로운 규정의 도입을 위해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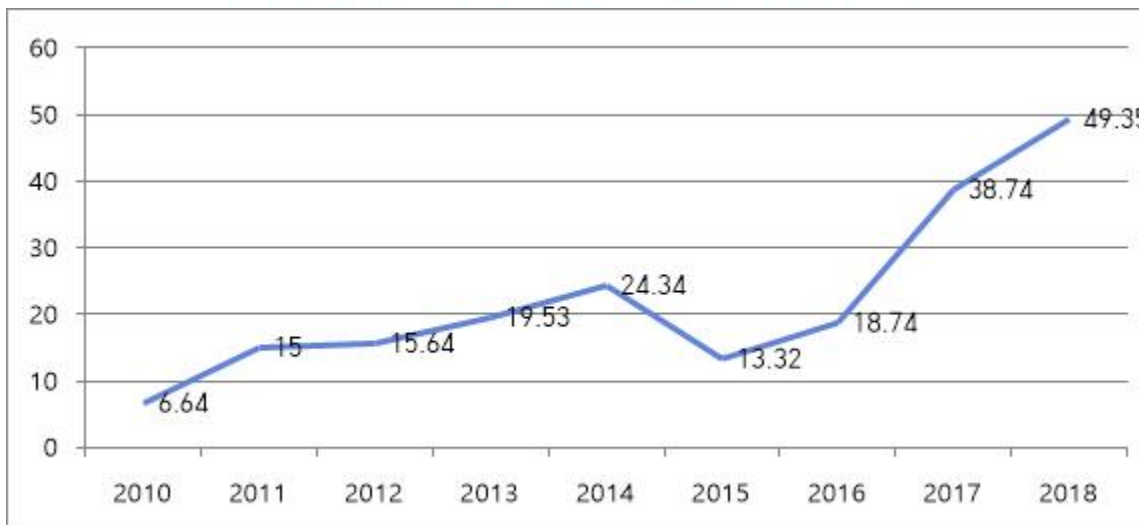
까지를 임시회계연도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이 있는 일부 품목은 이와 같은 대외교역 축소 국면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비즈니스 여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농산물 재배에 필수적인 화학비료는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시장성을 유지하있는 대표적 유망 품목 중 하나다.

우호적인 시장진출 여건

화학비료 수요는 미얀마 정부가 농촌 현대화를 본격화한 2010년대 초반부터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통계자료에는 2010년 1헥타르(ha)당 6.64kg였던 미얀마의 경지 면적당 화학비료 소비량이 2018년에는 약 7.4배 늘어난 1헥타르(ha)당 49.35kg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15년에는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감소했지만, 이후에는 경지 면적당 화학비료의 수요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얀마 비료·종자·농약기업협회(Myanmar Fertilizer, Seed Pesticide Entrepreneurs Association) 관계자도 정부의 농촌 현대화 정책과 농민들의 인식변화로 전통적인 퇴비의 사용은 줄어드는 반면 화학비료의 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미얀마의 경지 면적당 화학비료 소비량 변화>
(단위: kg/ha)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화학비료 수입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정책 기조도 시장에 우호적이다. 특히 현지 정부는 외화 유출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 발급 제도를 대폭 강화했음에도 화학비료는 유류(油類), 농산물, 봉제부품 등과 함께 라이선스 발급 우선순위 품목으로 별도 지정한 바 있다. 당시 미얀마 상무부 고위관계자는 “국가의 존속이나 핵심 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품목이 우선 발급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밝히며, 화학비료의 원활한 공급이 자국 기간산업인 농업의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실제로 미얀마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ing)가 자국 통화로 집계해 발표한 2020 회계연도의 농업생산량은 총 14조8698억 짜트(Kyat)로 국내총생산(GDP)인 112조7739억 짜트(Kyat)의 13.19%를 차지했을 만큼 국가적으로 농업의 경제적 비중이 크다. 또한 같은 해 상무부가 집계한 농산물 수출액도 총 37억 2,570만 달러로 나타나 전체 수출액인 176억8108만 달러의 21.1%를 차지한 바 있다. 따라서 수출을 통해 최대한 외화를 확보해야 하는 미얀마 정부는 앞으로도 자국의 농업 생산성 증대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으며, 화학비료에 대한 수입 라이선스 우선 발급 기조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정부는 화학비료 관련 산업의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는 지난 2021년 11월 25일 비료제조업을 시멘트 제조업, 철강, 농축산업, 식품가공

업, 전기차 제조업,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산업 및 대중교통 서비스업과 함께 '8대 중점 투자유치 분야'로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중점 투자 유치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부여 계획은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은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화학비료의 공급 현황

현재 미얀마에서 소비되는 화학비료는 대부분 해외 수입을 통해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뷰에 응한 미얀마 농축산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Irrigation) 관계자도 “화학비료 전체 소비량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얀마 내에서 제조되는 비료의 종류와 규모가 명확히 집계되지 않아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한 비교는 불가능하다.

화학비료의 수입은 최근 10개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통계 기관인 Global Trade Atlas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2년 약 8850만 달러였던 화학비료 수입액이 2021년에는 5.3배 증가한 4억6886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코로나19로 교역이 위축됐던 2020년의 수입액은 4억5823만 달러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지만,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21년의 수입액은 오히려 2.3%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즉,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일반적으로 수입 규모가 감소하는 소비재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의 화학비료 수입 동향>

(단위: US\$ 천)

수출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중국	51,076	59,794	66,200	54,367	123,839	154,647	204,706	285,568	292,312	213,451
태국	21,150	30,832	30,061	33,986	50,667	79,350	101,008	61,586	45,781	83,743
말레이시아	8,608	15,165	13,424	3,575	4,009	15,453	28,686	62,045	48,181	51,049
인도네시아	4,603	10,198	6,937	4,052	2,682	2,645	5,482	172	7,487	36,812
이란	-	-	-	-	-	-	-	-	-	30,799
대한민국	27	27	32	324	993	4,602	19,544	14,484	19,927	17,950
베트남	-	-	-	-	-	-	-	10,974	12,823	8,476
유럽연합(EU)	666	3,927	4,977	6,752	6,230	8,701	13,705	9,424	5,628	8,207
사우디	-	-	-	-	-	-	2,854	16,385	9,183	6,971
캐나다	-	-	-	-	-	183	-	-	2,747	6,468
기타	2,374	7,445	8,045	6,000	6,991	9,854	59,476	24,374	14,165	4,937
총계	88,504	127,388	129,676	109,056	195,411	275,435	435,461	485,012	458,234	468,863

[자료: Global Trade Atlas]

* 주: 상기 표는 아래와 같이 5개 HS Code를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2021년 기준 수출 상위 10개국을 순서대로 별도 표시했다. 연도는 국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표기했다.

- HS Code 3101: 혼합 또는 화학 작용을 거친 동물 또는 식물성 비료 등
- HS Code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
- HS Code 3103: 인산질 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
- HS Code 3104: 칼륨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
- HS Code 3105: 질소, 인,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복합 화학비료

화학비료 수입시장에서는 중국이 약 45%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인근 아세안(ASEAN) 국가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미얀마를 상대로 약 1795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다.

요소비료(Urea)의 수입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미얀마 시장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특징이다. HS Code 310210번으로 분류되는 요소비료만으로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2년 1515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입액이 2021년에는 1억9186만 달러로 무려 12.7배 폭증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비료·종자·농약기업협회(Myanmar Fertilizer, Seed Pesticide Entrepreneurs Association) 관계자도 “미얀마의 수입업체들이 국내 요소비료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 결과 2021년에는 대량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이란 거래처 2개사를 발굴했다고 전했다. 미얀마와의 화학비료 거래 실적이 전무했던 이란이 2021년 5번째 핵심 수입국으로 급부상했던 배경에는 이와 같은 현지 수입업체들의 공급선 확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요소비료(Urea)의 수입 동향>
(단위: US\$ 천)

H S Code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10210	15,156	28,237	24,582	17,415	69,494	112,269	162,837	141,989	139,601	191,864

[자료: Global Trade Atlas]

한편 미얀마 내의 화학비료 제조 기반은 아직까지도 매우 부실한 편이다. 현지 조사기관 Myanmar Marketing Research and Development에서 2021년 발간한 ‘미얀마 기업 디렉토리(Myanmar Directory)’에는 화학비료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현지기업 4개사와 해외 합작투자기업 3개사가 수록돼 있었으나 해당 업체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해본 결과, 이들 대부분은 제품을 자체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로부터 완제품에 가까운 화학비료를 들여와 혼합해 판매하거나 재포장에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일본의 마루베니(Marubeni)가 합작투자로 설립한 Marubeni Myanmar Fertilizer사의 관계자도 일본에서 들여온 화학비료를 거의 그대로 재포장해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가 소유한 2개 기업도 제조원료는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얀마 기업 디렉토리에 수록된 비료생산 및 유통업체>

	업체명	설립연도	투자 형식
1	Agri First Co., Ltd	2012년	태국, 독일 합작투자
2	Marubeni Myanmar Fertilizer Co., Ltd	2016년	일본 합작투자
3	TCCC Myanmar Ltd	2016년	태국 합작투자
4	Myanmar Awba Group	1995년	현지업체 단독투자
5	Toe Pwar Mandalay Co., Ltd	2002년	현지업체 단독투자
6	Wisara International Co., Ltd	2002년	현지업체 단독투자
7	Mar Lar Myaing Co., Ltd	2017년	현지업체 단독투자
8	Myaungtaga	2010년	에너지부 산하 국영기업
9	Kangyidaunt	2011년	에너지부 산하 국영기업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조사]

화학비료 수입허가절차

미얀마 정부가 화학비료 수입에 우호적이기는 하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품목인 만큼 다소 복잡한 수입 허가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특히 수입 라이선스 신청 전에 품목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의 추가 확인 과정이 요구된다.

우선 수입업자는 제품을 들여오기 위해 먼저 농축산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Irrigation)에서 비료등록인증서(Registration Certification for Fertilizer)를 발급받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부처가 교부하는 비료수입 추천서(Recommendation for Import of Fertilizer)를 획득해야 한다. 다음으로 미얀마 비료·종자·농약기업협회(Myanmar Fertilizer, Seed Pesticide Entrepreneurs Association)의 '비료 수출기업 규모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을 통과하면 비로소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비료 수입허가 개요>



[자료: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농업축산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Irrigation), KOTRA 양곤 무역관 정리]

비료등록인증서(Registration Certification for Fertilizer)는 농축산관개부 농업국(Department of Agriculture) 토지활용과(Land Utilization Division)의 비료위원회(Fertilizer Committee)에서 발급하며, 수입업자는 인증서 획득을 위해 1) 신청서, 2) 제품 성분 증명서, 3) 미얀마어 표기 제품설명서 등 3가지 서류와 수입대상 제품의 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비료위원회는 서류의 검토와 샘플 검사를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수입업자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하기도 한다.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미얀마대외무역은행(MFTB, Myanmar Foreign Trade Bank)에 현지화 50만 짜트(Kyat), 미화로 238달러 정도의 등록비를 납부하고 인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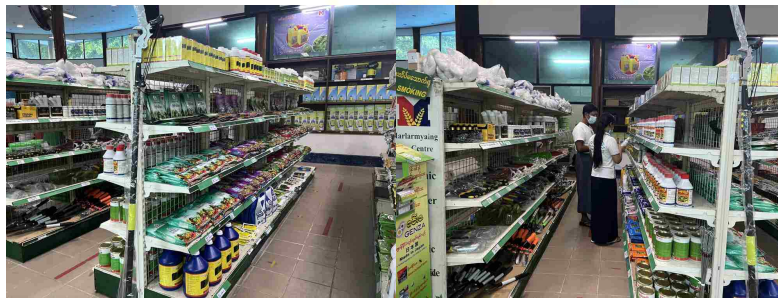
비료등록 인증서가 발급되면 이를 다시 농축산관개부 농업국에 제출해 비료수입 추천서(Recommendation for Import of Fertilizer)를 교부받아야 한다. 비료수입추천서 발급을 위해 수입업체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 9가지 종류이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료등록 인증서 사본 (2) 수출업체가 발행한 견적서(Proforma Invoice) (3) 미얀마어 제품설명서 (4) 수출업체가 수입업체에 교부한 수입, 판매권 부여 증명서 사본(별도 양식 없음) |
|---|

- (5) 표장 사업자 라이선스(수입업체가 비료를 대단위로 포장해 판매하기를 원할 경우)
- (6) 수입업체의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CA) 등록번호(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 (7) 수입업체의 제품판매권서(Letter of Authorization)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 (8) 비료 생산판매업자 라이선스(수입하고자 하는 비료의 질소 함량이 높을 경우)
- (9) 제품명, 성분, 비료등록인증서상 등록번호 및 수입규모

비료·종자·농약기업협회(Myanmar Fertilizer, Seed Pesticide Entrepreneurs Association)는 비료수입 추천서를 교부받은 수입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수출기업이 적정한 규모와 재정 상태를 갖췄는지 검토하며, 이때 별도로 요구하는 추가 서류는 없다.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업용 화학비료>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마지막으로 수입업체는 요소비료구매유통위원회(Urea Fertilizer Purchase and Distribution Committee)를 거쳐 외환감독위원회(FESC, Foreign Exchange Supervisory Committee)의 달러화 국외송금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이 절차는 미얀마가 정부가 외환 통제를 강화하기 최근 신설한 것으로 비료가 아닌 다른 제품의 수입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된다. 참고로 요소비료구매유통위원회는 외환감독위원회에게 심사 필요 사항을 단순 전달하는 역할만 하며, 위원회 명칭과 달리 모든 종류의 비료 수입 행정을 담당한다.

시사점

현재 미얀마의 경제위기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정치적 요인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그 해소 시점을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 상황에 따라 소비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소비재나 문화콘텐츠 등의 품목만으로는 현지 시장에서 단기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화학비료는 농업국 미얀마가 공급선 유지에 주력하고 있는 품목이므로 정치적 리스크의 영향 또한 비교적 적게 받는 편이다.

미얀마의 자체 제조 역량이 단기간 내에 향상될 수 없기 때문에 화학비료 수입시장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지 산업구조가 탈(脫)농업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수요가 갑자기 감소할 위험도 적다. 향후 미얀마 경제가 정상화될 경우 농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며 화학비료 수요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미얀마의 화학비료 시장을 유망분야의 하나로 고려하며 장기적인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자료: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 비료·종자·농약기업협회, KOTRA 양곤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9. 미국 오븐 및 조리용 기구 시장동향

- 작년 한국산 조리용 기구 대미 수출, 2020년 대비 47% 증가
- 인테리어 요소로도 손색없는 감각적 디자인과 컬러의 조리기구 제품 전망 밝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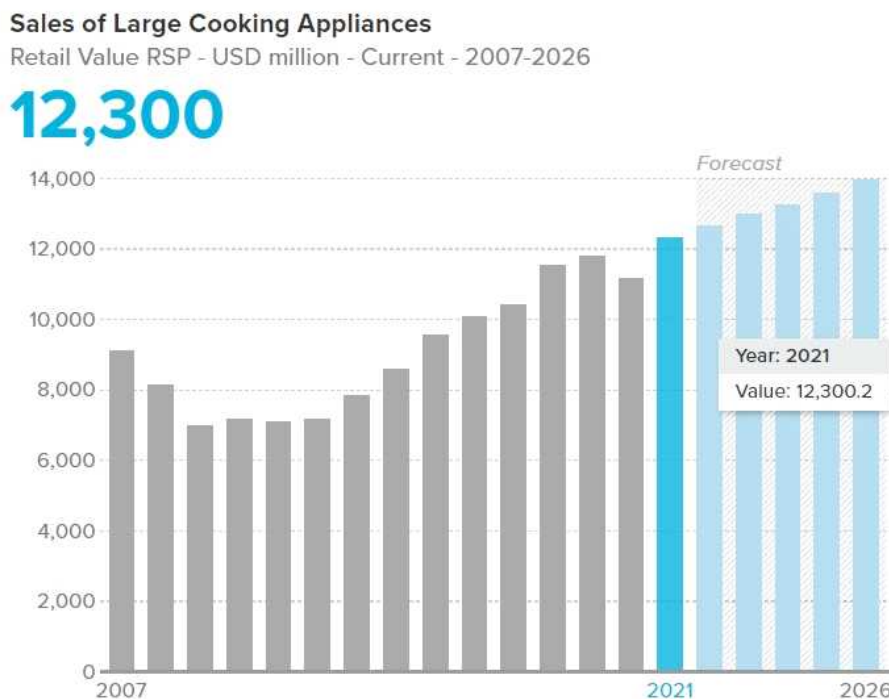
상품명 및 HS Code

오븐 및 쿠키 스토브, 가스레인지, 그릴 등 주방 조리용 기구의 HS Code는 크게는 '전기식의 각종 가열기, 난방기, 전기 가열식 헤어 케어 기기, 건조기, 전기다리미 및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Electric instantaneous or storage water heaters and immersion heaters; electric space heating apparatus and soil heating apparatus; electrothermic hairdressing apparatus and hand dryers; electric flatirons; other electrothermic appliances of a kind used for domestic purposes; parts thereof)'로 정의되는 제8516호에 포함되며, 세부적으로는 '그 밖의 오븐, 쿠키 스토브, 레인지, 조리판, 보일링 링, 그릴러 및 로스터 등(Other ovens; cooking stoves, ranges, cooking plates, boiling rings, grillers and roasters:)'을 의미하는 하위 품목 8516.60으로 분류된다.

시장동향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 Euromonitor의 미국 대형 조리기구 시장 보고서(Large Cooking Appliances in the US, 2021년 12월 발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오븐과 각종 조리용 기구를 포함한 미국의 대형 조리기구 제품 소매시장 규모는 2020년의 약 111억950만 달러 대비 10.6% 증가한 약 123억20만 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해당 시장의 규모는 2021년 팬데믹 여파로 급증한 수요가 누그러지면서 2026년에는 약 120억 달러 규모까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2026년 미국의 대형 조리용 기구 소매시장 규모 변화 추이>
(단위: US\$ 백만)



주: 2021년 이후의 수치는 예상치

[자료: Euromonitor Passport(Large Cooking Appliances in the US, 2021년 12월 발간)]

Euromonitor에서는 미국 대형 조리용 기구시장을 세부적으로 빌트 인 조리판(Built-in hobs), 오븐(Ovens), 쿠키 후드(Cooker hoods), 가스·전기 레인지(Cookers), 하단에 오븐을 포함한 오븐 레인지(Range cookers) 분야로 분류하며, 이 중에서는 가스 및 전기 레인지 품목이 약 62억2230만 달러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 오븐 품목과 쿠키 후드 품목이 각각 약 19억 달러 규모로 유사한 비중을 나타내며, 오븐 레인지 품목 역시 약 15억 달러 규모를 차지한다. 2021년까지 미국의 주택시장 열풍이 연일 이어지면서 오븐이나 가스레인지와 같은 주방 조리용 기구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주택 가치를 높여려는 소비자로부터의 수요가 해당 시장의 2021년 매출 성장을 견인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2021년 미국의 기타 오븐 및 조리용 기구 수입액은 전년대비 23.9% 증가한 약 23억7215만 달러로 집계됐다. 해당 품목 전체 수입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수입국 중국으로부터의 작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14.5% 증가한 약 12억8539만 달러 규모이며, 그 외 2위와 3위 수입국인 멕시코와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각각 약 3억4089만 달러와 3억1653만 달러로 기록됐다. 수입국 1~3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액이 해당 전체 수입시장의 대부분인 약 82%를 차지하는 가운데, 작년에는 특히 이탈리아(146.3%)와 스페인(130.7%)으로부터의 전년 대비 수입액 증가가 눈에 띈다. 한편, 작년 한국의 기타 오븐 및 조리용 기구 대비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46.5% 성장한 약 1억6506만 달러로, 전체 수입 시장에서는 7%의 비중을 차지하며 수입국들 중 4위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미국의 오븐 및 기타 주방 조리기구 수입동향(HS Code 8516.60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연도별 수입액			비중			증감률 '21/'20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전체	1,623.57	1,914.42	2,372.15	100.0	100.0	100.0	23.9
1	중국	904.46	1,122.25	1,285.39	55.7	58.6	54.2	14.5
2	멕시코	221.15	252.72	340.89	13.6	13.2	14.4	34.9
3	태국	228.60	275.73	316.53	14.1	14.4	13.3	14.8
4	한국	89.37	112.65	165.06	5.5	5.9	7.0	46.5
5	이탈리아	25.41	25.77	63.46	1.6	1.3	2.7	146.3
6	독일	47.67	37.57	54.16	2.9	2.0	2.3	44.2
7	스페인	15.61	13.58	31.32	1.0	0.7	1.3	130.7
8	스위스	26.99	16.18	26.72	1.7	0.8	1.1	65.1
9	프랑스	16.71	17.98	19.50	1.0	0.9	0.8	8.4
10	터키	8.78	7.84	19.31	0.5	0.4	0.8	146.3

[자료: IHS Markit Connect Global Trade Atlas(2022.9.1.)]

경쟁동향

Euromonitor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조리용 기구 시장의 경쟁 구도를 구성하는 기업들 중에는 GE Appliances 브랜드를 소유한 Haier Group과 Whirlpool 브랜드를 보유한 Whirlpool Corporation을 선두 주자로 꼽을 수 있다. 이 두 기업은 위의 대표 브랜드 제품들을 필두로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인 약 53%를 점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장을 구성하는 주요 브랜드를 살펴보면 Broan, Kenmore, Frigidaire, Maytag, Nutone 등이 있으며, 해당 시장 10위권 브랜드 내에 우리 기업 브랜드인 삼성과 LG 역시 포함돼 인상적이다. 시장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표 브랜드는 단연 GE와 Whirlpool이지만, 최근에는 KitchenAid와 같이 프리미엄 제품에 초점을 맞춘 브랜드나 Fisher & Paykel처럼 깔끔하고 모던

한 디자인의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브랜드도 많이 목격된다.

<대표적인 조리기구 브랜드 GE, Whirlpool, Frigidaire>



[자료: 각 사 공식 웹사이트]

유통구조

미국에서 오븐 및 기타 조리용 기구의 약 59%는 매장을 기반으로 한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된다. Euromonitor에 의하면 전체 제품의 약 47%가 가정 및 관련 용품 전문 소매점과 전자·가전제품 전문 판매점 등의 비식료품 소매점을 통해 유통됐으며, 약 10%는 백화점 등의 혼합형 소매점을 통해 판매됐다. 이러한 오프라인 유통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매장 기반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유통 비중은 약 13%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그 외에 약 28%는 소매 채널이 아닌 주택 건축 업계로 바로 유통되고 있다.

관세율 및 인증·수입규제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따르면, HS Code 8516.60은 하위 품목에 따라 적게는 무관세부터 2.7%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며, 한국산 제품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한 관세 혜택으로 모든 하위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한미 FTA 상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제품은 미국 세관 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 등의 필요 서류를 갖춰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 및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원자재 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는 통관 후에도 통관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미국 세관에서는 한미 FTA를 포함한 무역 협정에 따른 원산지의 사후 검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으로 조리용 기구를 수출할 경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증은 별도로 없으나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CPSC)의 각종 안전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 CPSC는 2008년 8월에 개정된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에 따라 2008년 11월 12일 이후 생산된 모든 수입 소비자 제품에 대해 안전성 테스트 증빙을 미리 갖추고 미국 내 제품 통관 시 세관이 증빙을 요구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외로 추가적인 소비자 안전성 제고와 원활한 마케팅을 위해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이나 ETL(Electrical Testing Labs)과 같은 국가적으로 공인된 테스트 및 인증기관(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ies, NRTL)을 통해 전자제품의 안전성 테스트와 자율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Energy Star와 같은 에너지 효율성 인증 역시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로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에 'Proposition 65'에서 지정하는 유해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돼 있거나 발생하는지 사전에 검토해 독성물질이 검출될 경우 OEHHA의 규정에 따라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2020년, 미국 소비자들은 실업 증가와 경기 후퇴 등을 겪으며 비교적 규모가 크고 비용 또한 높은 오븐레인지나 스토브 등의 대형 조리기구에 대한 수요를 대폭 줄

인 바 있다. 그러나 2021년을 지나며 팬데믹으로 인한 각종 영향이 비교적 줄어들고 경제 상황 역시 완화되면서 미국 소비시장과 주택시장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에 신규 주택 건설이나 홈 리모델링 등 주택 관련 시장에 열풍이 불면서 신규 가전제품 마련 혹은 업그레이드에 필수로 꼽히는 조리기구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건축 및 인테리어 분야 전문 매체 Houzz 및 Euromonitor의 공통적인 분석에 따르면, 가스를 사용하는 기구보다는 인덕션과 같은 전기 레인지나 쿡탑이 소비자 호응도가 더 높은 듯하다. 직화방식이 아니라 표면 전체에 전기로 열을 가하는 방식의 인덕션 레인지는 냄비나 프라이팬 바닥 전체에 열을 균열하게 전달해 가열 시간이 훨씬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관심과 인기의 증가로 다양한 브랜드에서 새로운 인덕션 제품을 다수 출시하고 있다. 한편, 주방 기구를 인테리어 요소로 여기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심미적으로도 더 훌륭하고 환기 효율도 훨씬 높은 독립형 쿡터 후드(Cooker hoods)에 대한 수요도 점점 높아지는 양상이며, 일반적인 스테인리스 컬러를 탈피한 감각적이고 모던한 컬러의 제품에도 소비자 관심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KitchenAid의 모던한 블랙 컬러 독립형 쿡터 후드>



[자료: KitchenAid 웹사이트(<https://www.kitchenaid.com/>)]

관련 분야 기업이라면 이러한 최근 트렌드를 발 빠르게 파악해 제품 개발 및 마케팅에 적절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리기구는 열을 가한다는 특징이 있는 만큼, 소비자 안전성 및 기업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성 테스트,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등의 대비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한편, 조리용 기구가 해당하는 HS Code 8516.60은 하위 분류에 따라 무역 통상법 301조에 따른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 3차 리스트(2019년 5월 발효) 및 4차 B 리스트(발효 보류 중)에 포함돼 있다. 이 중 8516.60.40에 해당하는 중국산 품목에는 현재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관련 우리 기업들은 미국으로의 해당 제품 수출 시 이를 참고해야 한다.

자료: Euromonitor Passport, IHS Markit Connect Global Trade Atlas,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관세법령정보포털(CLIP), CPSC, Sandler, Travis & Rosenberg, P.A., Houzz, GE, Whirlpool, Frigidaire, KitchenAid, Pixabay,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